

예수사람

대한예수교장로회
흑암교회

기도회	김태영 목사
찬양	Shem과 함께
기도인도	박은지 자매
성경봉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선포	POWER
기도회	다 같이
봉헌송	다 같이
축도	김태영 목사
광고	송경욱 형제
축하순서	김아름 자매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청년 1부	청년 2부
지도 김홍익 전도사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부장 유호천 집사
회장 박은지 자매	회장 박정진 자매
부회장 김아름 자매	부회장 정혜진 자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예배일	기도인도	예배 섬김
01월 13일	정혜진 자매	청년부 임원
01월 20일	김아름 자매	청년부 임원
01월 27일	박정진 자매	청년부 임원
02월 03일	박문영 자매	청년부 임원

Shem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풀 거름 비갈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 없

네 예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CCM 부르는소리
http://cafe.daum.net/ccm

모임시간 안내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청년부실
♪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시/청년부 교사실
♪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청년부실
♪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5시/청년부실
♪ F.C 예람 모임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
♪ G.S 선교팀 모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예수사랑에게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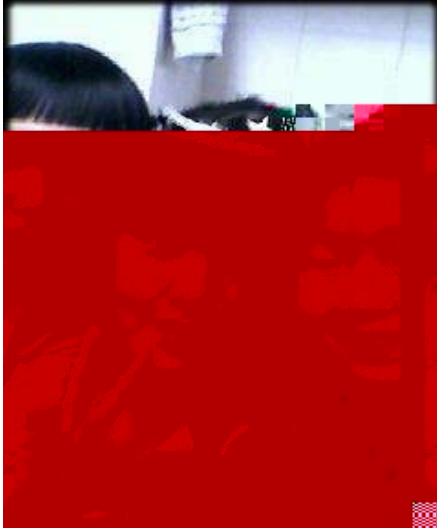
- 08년 신년 부흥회가
1월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강사: 장봉생 목사(서대문 교회 담임)
주제: 복이 있으리라
- 08년도 19기 신입생을 환영 합니다.
예배후 7시 신입생들은 대학로 민들레 영토에서
환영식 있습니다.
- 14일부터 2월2일까지 성경통독이 있습니다.
성경통독 지원자 모집 합니다.
- 17일부터 19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 : 수양관
(회비 15,000, 1박 참여 10,000, 2부 20,000)
- 매주 저녁7시 드림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 08년도 제자훈련 훈련생 모집합니다.
- 각 팀장님들은 08년도 팀장 확정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청년부 문서 선교팀 Coram Deo

커뮤니티 www.coram.kr

양승연 자매를 소개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

우선 후암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26살 양승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직장을 잡고,
그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다가,
이곳 후암교회로 교회를 정하기까지
약9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교회만 쭉~욱~ 다니다가,
제가 새신자의 입장으로 교회에 나오려니
적응도 안되고 ..;;; 참 어색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왔던 새신자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

그때 왜 새신자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행복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만화로 보는 묵상

포켓몬의 눈.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다.

가서적이야!

인도인간

가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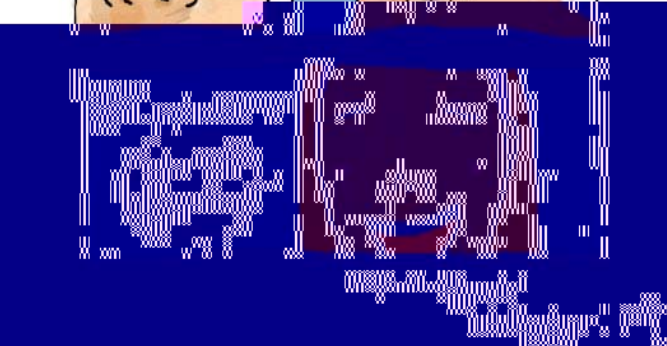
아이들이...

사생활이 어지러...

나도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다.

(7월14일 목요일)



열두제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낮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소외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진리.

그 위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양승연 자매를 소개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 녀석들이
미워지기도 한답니다. 처음에 이 길을 선택하고
가기까지 “난 정말 아이들이 좋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 일거야!
꼭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야지~!” 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이 일을 2년째 하면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며, 아이들도 미워지고 T·T

그런 제 자신도 많이 미워집니다.

과연 내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며 제 자신에게 자주 묻게 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처음 가졌던 아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욱 자라게 될 제 믿음~~

이곳에서 많이 많이 자라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